

자녀 안전·교육자금 한 번에... 새학기 보험 특화상품 주목

삼성화재, '자녀올케어II 특약' 등하굣길 보행 중 차사고 보장
교보생명, '아이교육보장보험' 교육자금에 종신보험까지 결합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지난 4일 전북 전주 전주효천초등학교에서 신입생과 학부모가 입학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시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의 안전사고와 교육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등하굣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중·장기 교육자금 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새학기를 맞아 자녀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하는 '자녀올케어II 특약'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자녀(만18세 이하) 등하굣길을 걸어가다 자동차와 접촉한 사고를 보장한다.

기존 자녀올케어 특약은 자녀가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했다. 이번 신설했던 특약은 자녀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자녀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손자녀를 포함했다.

자동차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경

우 '교육보충 지원금', '심리상담 지원금',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후유장애 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의 50%를 추가지급한다.

삼성화재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개학 시즌을 맞아 우리 자녀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며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들이 불의의 사고에도 빠른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 연령은 6~15세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

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DIY (Do It Yourself) 상품이다.

초중학생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다. 당장 필요 없거나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보장까지 십년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튼튼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

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 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자금 마련까지 고려하면 교보생명의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이 대안으로 꼽힌다. 해당 상품은 시대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에 교육보험을 결합한 교육보장보험이다.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보험료 납입기간(10년납 미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교육자금 자동전환 기능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발생한 재원으로 자녀 대학등록금, 해외유학·독립자금 등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납입기간과 가입금액에 따라 17%에서 최대 28.5%까지 교육자금 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둔 3040 부모는 물론 교육보험의 추억이 있는 6070 조부모들도 손주의 교육·독립자금 마련은 물론 가족생활보장까지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산학 협력 아이디어 라이프노로지 랩 개최

삼성생명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성수동 레트에서 '라이프노로지 랩(Life nology lab)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라이프노로지 랩'은 삼성생명 및 국내 3개 대학(홍익대·국민대·성균관대), 삼성디자인교육원(SADI)이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보험을 넘어 고객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시작한 혁신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탄생시켰다.

실제 연구소 컨셉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회는 고객 행복에 꼭 필요한 '신체(physical)', '정신(mental)', '사회(social)'적 웰니스를 주제로 디자인된 25개 작품이 전시된다.

삼성화재 전액본인부담비 보장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

삼성화재는 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 항암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비 및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비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는 고객이 소요되는 전액본인부담 암 치료비를 보장한다. 고객들이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의 치료 선택권을 넓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암 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는 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넓히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피도크 협업 영상 선포

현대해상은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법' 영상 캠페인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영상은 '수영과 항해'를 주제로 소녀, 어머니, 할머니 세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숏폼 애니메이션이다. 일러스트레이터 '피도크' 작가와 협업으로 제작됐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소녀, 그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어머니, 이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새로운 도전과 따뜻한 연대를 통해 확장되는 여성들의 힘은 유적이고 동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원 아이파크 완판됐지만... 강북권 집값 저항 여전

GTX-C 등 대규모 개발 기대에도 강남권 신축과 차이 적어 부담감

서울 강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서울원 아이파크'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판됐다. 하지만 분양 초기부터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두 차례 무순위 청약에 거처야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서울원 아이파크는 최근 진행된 2차 무순위 청약에서 99가구 모집에 516명이 신청해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분양 절차가 마무리 수순이다.

분양 과정이 기대 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하며 초기 흥행에 성공한 듯했지만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다.

이후 두 차례 무순위 청약에 거처 남



'서울원 아이파크' 완공 후 예상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은 가구가 해소됐지만 강북권 단지의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이 드러났다. 특히 전용면적 105㎡의 분양가는 최고 16억원대로 책정돼 강남권 일부 신축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대규모 상업시설 등과 함께 신축 주거단지 개발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프라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실거주 수요가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정기철(74)씨는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이 많다"고 말했다.

강남권과 달리 강북 지역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정 가격대 이상의 매물에 대한 매수 심리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와중에 수요자들의 잦아드는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입지의 희소가치 등에 따라 수요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는 '뽕뽕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반면 강북권에서는 가격 저항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강북권 신축 단지는 가격 저항이 커지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전지원 기자 jiw13@

둘째 주 전국 3개단지서 1205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부천 심곡동 '부천JY포에시아' 청약
건본주택은 인천 용현동 1곳서 개관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205가구(일반분양 12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JY포에시아', 경북 안

동시 용상동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에피드스타시티'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웰센트럴마린' 1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코로롱글로벌은 경북 안동시 용상동 일원에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9개동, 전용면적 84㎡, 총 548가구 규모



'용현우방아이유웰센트럴마린' 투시도. /용현우방아이유웰센트럴마린 홈페이지

다. 단지 앞 경동로를 통한 안동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며 용상교리신국도를 비롯한 용상중로, 안동 외곽순환도로 교

차로 등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SM스틸·SM경남기업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서 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용현우방아이유웰센트럴마린'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1층, 2개동, 전용면적 59~76㎡, 총 252가구 중 아파트 196가구(오피스텔 76실 별도)를 일반분양한다. 수인분당선 승의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전지원 기자